

[보도자료] 토트넘 내한 경기, 와우회원 300만명 봤다

2022. 7. 17.



- ‘쿠팡플레이 시리즈’ 토트넘 친선경기 2회 생중계, 총 접속자 수 약 300만 명 기록하며 역대급 뷰어 기록
- 오프라인 경기 직관에 총 10만8천 관객 모여 자사 회원만을 위한 스포츠 이벤트로 국내 최대 규모

2022. 7. 17. 서울 - 쿠팡플레이가 토트넘 핫스퍼 구단을 초청해 주관하는 ‘쿠팡플레이 시리즈’ 경기 중계를 통해 역대급 접속자 수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했다.

‘쿠팡플레이 시리즈’ 2개 경기 모두 쿠팡 와우회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혜택으로 오직 쿠팡플레이 웹사이트 및 앱을 통해서만 중계됐다. 쿠팡 와우 멤버십에 가입된 회원들은 국민 스타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의 역사적 경기를 시청하기 위해 쿠팡플레이에 접속, 안정적이고 매끄러운 중계를 통해 경기를 만끽했다.

지난 13일 저녁 토트넘이 팀 K리그와 뜨거운 승부를 펼치며 축구 팬들에게 9번의 짜릿한 골맛을 선사했던 1차전의 경우, 약 184만 명의 UV(유니크 뷰어·Unique viewer: 중복 없이 1회 이상 경기를 재생한 고객)를 기록했다. 이어 토트넘과 세비야 FC가 화려한 유럽 축구를 선보인 16일 2차전 중계는 110만 명의 UV를 기록하며 대미를 장식했다. 이로써 두 경기를 모두 합쳐 약 300만 명에 달하는 전국의 쿠팡 와우회원들이 쿠팡플레이에 접속해 토트넘 경기를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쿠팡플레이 시리즈’ 티켓 또한 쿠팡 와우 멤버십 가입 회원들에게만 판매해 오직 와우 회원들에게만 경기 직관의 기회가 제공됐다. 1차전이 치러진 서울월드컵경기장에는 6만4100명의 관중들이 모였고, 2차전 장소였던 수원월드컵경기장에는 4만3998명이 관중석을 가득 메웠다. 볼이 골문을 가를 때마다 쿠팡 와우 회원들의 뜨거운 함성이 경기장에 울려 퍼졌으며, 필드에 선 선수들은 응원에 힘을 받아 더욱 좋은 경기를 보여줬다.

쿠팡은 ‘쿠팡플레이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자사 유료 멤버십 가입 회원만을 대상으로 기획한 스포츠 이벤트로 국내 유례없는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축구를 매개로 쿠팡의 와우 회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한마음으로 응원하게 만들었던 감동의 이벤트로 남았으며, 엄청난 스케일에도 불구하고 매끈하게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많은 호평을 받았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을 믿고 사랑해주신 와우 멤버십 회원들에게 큰 즐거움과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쿠팡플레이 시리즈’를 준비했다”면서 “축구 경기를 통해 수많은 와우 회원들이 경기장에 집결하고, 수백만 명의 와우 회원들이 동시에 쿠팡플레이에 접속했다는 사실에서 깊은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